

보도일시 (인터넷,지면) 2023. 5. 17.(수) 07:30 배포 2023. 5. 16.(화) 16:00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 추진

- 김, 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 발굴, 천만 불 수출기업 100곳 육성 등 수출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7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Bluefood)’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불(2022년 31.5억 불)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우리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1억 불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김·참치 등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굴, 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하여 육성한다. 또한, 간편식, 건강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천만 불 수출 강소기업 100개 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수산식품기업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K·블루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창엽 (044-200-5481)

□ 추진 배경

- 우리 수산식품^{*}(블루푸드^{**})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산업의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고용 창출

* (수산 경쟁력) 31제1위 수출국, 세계시장 점유율 70% / 굴, 전복 세계 제2, 3위 수출국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품목 다수 보유, 수산물 양식 기술도 세계적 수준

** 수산식품으로서 블루푸드(Bluefood)는 해산물을 의미하는 씨푸드(Seafood)를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 자원, 해양 생태계 보전, 양질의 영양소 공급원 등으로 확장된 개념

□ 주요 추진내용

- (품목 수출 확대) 핵심품목 성장 지속, 스타·예비품목 발굴·육성

- (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유형별 품질 경쟁력 차별화

* 육종 기술 및 종자 개발, 스마트가공 시스템 구축, 수출시장맞춤형 신제품 개발 등

- (참치) ODA^{*}, 국제수산기구 협상력 제고 등 조업 기반 확보

* 투발루 어촌활력증진 ODA : 어업훈련센터·어항 건설, 수산시장 개선

- 1억불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스타품목, 예비품목을 선정·관리하고 상품화에서 수출까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굴) 고부가 개체굴 수출 확대 및 비관세장벽^{위생기준} 대응력 강화

(전복) 베트남·대만은 선물·외식용 활전복, 홍콩·태국·싱가폴은 가공품으로 공략

(연어) 스마트양식 등 기술 혁신으로 수입 대체 및 아시아 진출

- (가공역량 강화) 소비트렌드 맞춤형 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

- HMR, 건강기능성 등 제품 개발과 리패키징·브랜딩으로 상품 가치를 높이고 수출과 연계, 개인맞춤·기능성 수산식품 및 서비스 기반 마련

* (R&D) 기술 기반 산업화를 위해 주요 품목(감·굴·어묵)의 가공 공정 스마트화 연구 추진

- 원료 수급과 물류 환경이 좋은 항만 인근 부지에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출 거점화

* 접안 및 계류시설, 냉장·냉동·가공시설, 검역·검사·통관 등 기반이 갖추어진 무역항 인근 부지에 수산식품 수출기업 집적화 유도

- 수산식품기업 창업부터 상품 R&D·마케팅, 수출·물류 기능이 집약된 권역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가공종합단지** 조성

* 선도사업으로 전남권(목포 대양산단 내), 부산권(서구 암남동 일원) 클러스터 조성 중

** 첨단설비 기반 지역 특화 가공단지 조성 : ⁽²²⁾전북(~'25) → ⁽²³⁾경북(~'26)

○ (수출 지원) 수출기업 성장 지원 및 글로벌 K·블루푸드 마케팅 강화

- 쉬운 투자를 위한 수산기업 전용펀드* 조성, 우수 기업 투·융자 지원 패키지 제공 등 추진으로 수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 스마트 양식, 스마트 유통, 블루푸드-테크, 수산바이오, 친환경어구산업 등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 지원** 등으로 수산식품 천만불 수출 강소기업^(現 63개사) 100개社 육성

*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마케팅, 국제인증 취득 지원

** 현지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판로 확대, 홍보, 무역애로 해소, 지사화 등 수출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무역 실무역량 축적을 위해 맞춤형 수출교육 실시, '청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 수산식품 수출 물류 네트워크 및 콜드체인 확충, 온라인·외식시장 등 현지 판로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출선 확보 지원

- K-POP·K-박람회 등 한류 연계 문화마케팅, 글로벌 소비 시즌과 연계한 해외 집중 마케팅 실시(KGW: K·Bluefood Global Weeks)

○ (산업 성장 기반) 수출 확대를 위한 우수 기술·인력·추진체계 확보

- 수산물 유래 대체·배양 식품 기술, 수산부산물(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자원순환 등 블루푸드-테크(Bluefood-Tech.) 기술력 확보

* 新개념(대체·배양) 수산식품 탄생, 수산 빅데이터·AI기업 등장 등 수산업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기술·데이터 기반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 중

- 수산식품 수출 원팀* 가동하여 민·관 협력 수출 대응체계 구축

*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기관^{수협·aT·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물·KMI}, 수출 관련 지자체 등 참여